

## 연/합/감/리/교/회/한/인/교/회/총/회

## The Association of Korean Churche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고문:

이성현목사 (서부) 김광태목사 (중북부) 이성철목사 (중남부) 김정호목사(동북부) 안명훈목사(동북부) 일자: 2019년 9월 7일

수신: 한인연합감리교회

제목: 한교총 상임위원회 결의 사안

회장:

이철구목사 (동남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회장: 림학춘목사 (서부) 안성주장로 (서부) 김태준목사 (중북부) 윤용중장로 (중북부) 손태원목사 (중남부) 황철현장로 (중남부) 고한승목사 (동북부) 이배욱 장로 (동북부) 손유의 장로 (동남부)

<u>총무</u>: 김일영목사 (동북부)

<u>협동총무</u>: 신병옥목사 (서부)

<u>서기</u>: 배연택목사 (동남부) 유혁재목사 (동남부)

<u>회계</u>: 김윤기목사 (중북부) 박진원목사 (동남부)

<u>감사</u>: 양훈 장로 (동북부)

> <u>자문위원</u>: 장학순목사 류계환목사

한인교회총회 상임위원회 모임이 지난 8월 26일 부터 28일 까지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목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요 안건은, 2020년 5월 교단총회에서 교단의 분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살피며, '교단분리'의 상황 속에서 한인교회들을 지켜낼 대안과 〈한교총〉이 나아갈 방향성 및 연대 가능 그룹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상임위원들은 '진보/보수/중도' 각 진영에서 제안한 〈PLAN〉들을 살폈으며, 8월 27일에는 "인간의 성 Human Sexuality"에 대해서 한인교회와 신학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는 WCA 의장과 임원들을 만났고, 또 〈Bard & Scott Plan〉을 작성한 J 감독 및 복음주의 진영의 H 감독님과 조영진 감독 등을 초청하여 '교단분리'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듣고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 전역 5 개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등, 50 여명의 상임위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약 10 시간의 논의와 질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논의하며, 제안된 안건과 개의(改議)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첫째, GC 2020 에 한인교회의 청원안을 작성/제출한다.

- 합의에 의한 교단분리 법안 (Amicable Separation)
- 개체교회 교단탈퇴 및 재산권 보장 법안 (Disaffiliation Resolution & Trust Clause)
- 교단 분리시 안위보장 법안 (Do no harm policy)

둘째, 한교총은 '보수 그룹'과 연대한다.

• 개의안: 한교총은 WCA 와 연대하여 Amicable Separation 을 위해 노력한다

세째, 〈한교총〉 회장의 권한 아래 Task Force Team 을 구성한다.

〈한교총〉 상임위원들은 각 연회와 개체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 있음을 인지했으며,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는데 지역차 및 시간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가 '교단 분리' 및 '보수교단 구성'의 현실 속에서 "한인교회의 권익"을 반영시키는 대안이며, 내년 총회 후 진보 연회에 속한 한인교회들이 '전통적 신앙'에 근거하여 교단 등을 '선택'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이며 긴박한 일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상임위 모임을 진행하면서, 위원들 중에 <한교총>의 목표가 단지 '한인선교연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교총이 교단 분리 시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논의한 것이 외부에 잘못 알려져 발생한 오해로, 여러 차례 논의 하는 가운데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교총>은 이번 상임위원회의 결의대로, 우리 한인교회와 신앙적/신학적으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WCA 와 긴밀한 연대를 통하여, 비록 우리 모두 급변하는 교단적 상황에 놓여있지만, 한인교회의 신앙적 전통을 굳게 지키며 새로운 연합감리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회장 이철구 목사 드림